**쇼지코 호수 - 동양의 스위스**

쇼지코 호수는 후지 5호 중에서 가장 작은 호수입니다. 표면적이 0.5평방km에 불과하고 수심도 매우 얕아서 저수량은 사이코 호수의 고작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. 그래도 한가로운 환경과 복잡한 해안선이 있는 쇼지코 호수의 풍경은 후지 5호 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. 호반의 개발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된 덕분에 대부분의 풍경은 원래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었고 인공 건축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는 일도 없었습니다.

해 질 녘이 되면 석양에 물드는 ‘아카후지(붉은 후지산)’를, 또한 산 정상이 눈으로 덮히면 핑크빛으로 보이는 ‘베니후지(주홍색 후지산)’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 호숫가에는 많은 카메라맨들이 모여듭니다. 쇼지코 호수 서쪽에 있는 파노라마 전망대까지는 1시간 정도 산길을 걸어야 하지만, 그 힘듦을 잊게 할 만큼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쇼지코 호수에서 보이는 경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로 ‘고다키후지(아기를 안은 후지산)’가 있습니다. 쇼지코 호수와 후지산을 잇는 직선 사이에는 오무로야마 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, 쇼지코 호수의 북쪽 해안에서 이 방향을 바라보면 마치 후지산이 오무로산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오무로야마 산이 후지산의 경사면에 있는 분화구가 분화하여 생긴 산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후지산의 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

**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**

후에 일본으로 귀화한 영국인 남성 해리 스튜어트 휘트워스는 1895년 쇼지코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 지역을 ‘동양의 스위스’라고 부르며 호수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유럽식 호텔을 지었습니다. 휘트워스의 호텔은 후지 5호 주변에서는 최초로 외국인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.

온화한 환경의 쇼지코 호수는 특히 낚시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호수입니다. 봄부터 가을까지는 붕어를 잡을 수 있고 가을이 되면 빙어 낚시의 계절을 맞이합니다. 단 쇼지코 호수에서는 얼음 위에서 빙어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.